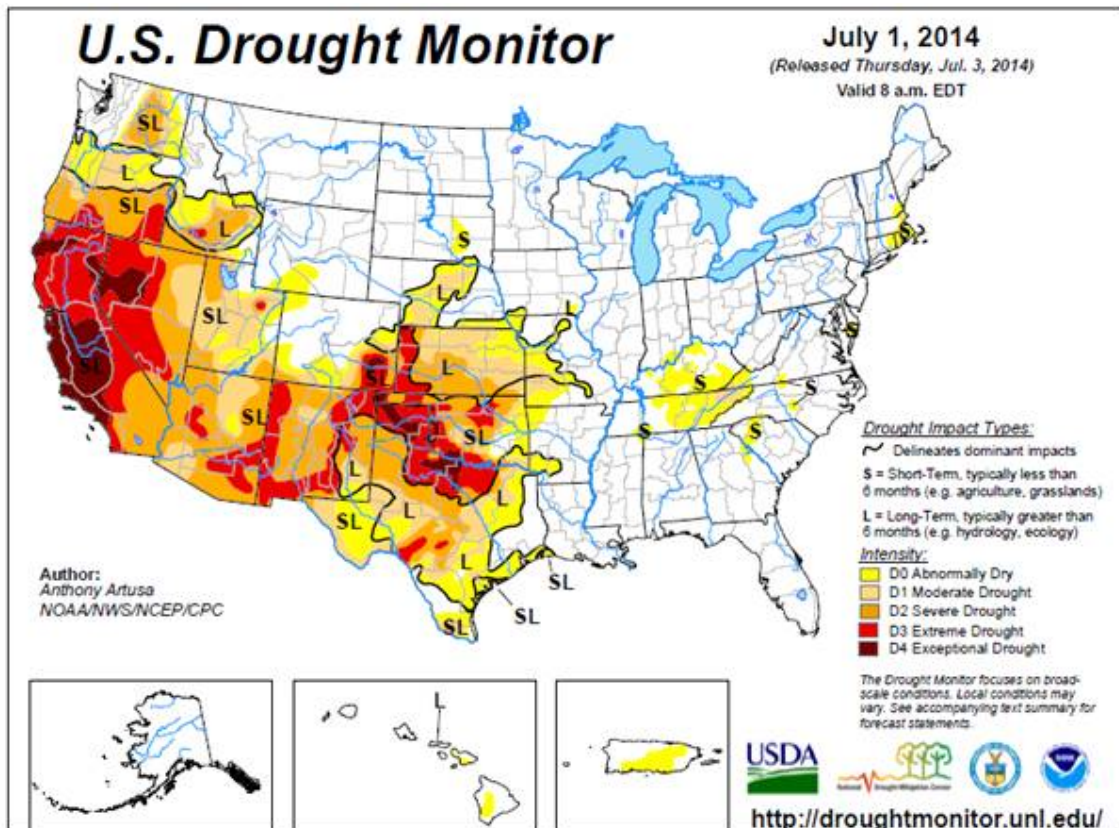


7월 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27)

□ 미국 기후 현황(06/29~07/05)



지난 7월 3~4일 밤, 2등급 허리케인인 아서가 캐롤라이나 북부 아우터뱅크스 지역을 강타하였으나, 농작물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으며, 대체로 연안지역에 한정되어 피해가 나타났다. 한랭전선의 일부인 허리케인은 대평원 지역, 중서부, 남부와 동부를 가로지르며 산발적인 비를 발생시켜 이 지역 일대를 휩쓸고 지나갔다. 한랭전선과 열대전선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주 후반에는 북부 대서양 연안지역의 경우 폭우성 강우가 내렸으며, 총 강수량은 2~4인치를 기록하였다. 한랭전선은 남부 대평원 지역에 지속되었던 가뭄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였고, 국지적으로 총 강수량은 2인치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주말에는 대체로 높은 기온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고원 평야 지역에 형성되었다. 주 초반, 폭풍으로 인해 6월 29~30일 사이에는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행하였다. 특히, 6월 29일에는 강풍과, 대규모 해일, 토네이도가 발생하여 콘벨트 지역(주로 북동부 네브라스카에서 북부 인디애나 및 남부 미시건 지역)을 지나갔으며, 이로 인해 농작물과 농업 기반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많은 양의 비(국지적으로 4인치

이상을 기록)는 아이오와와 인근 지역에 또 한 차례의 홍수를 발생하게 하였다. 한편, 계절상 발생하는 몬순 소나기는 남서부 지역에 형성되었던 국지적 가뭄 현상을 완화시켜 주었고, 캘리포니아와 북서부 지역의 대체로 고온 건조한 날씨는 관개 수요를 증대시켰으며, 비가 필요한 작물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하지만 야외 농업, 가을밀의 성숙도와 여름작물의 빠른 생육상황에는 도움을 주었다. 오레곤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주간 기온이 평년대비 평균 5°F 이상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아이오와와 인근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적어도 5°F 낮은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다수 중서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90°F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옥수수과 대두의 생육상황에는 효과적인 기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 현황 요약(06/30~07/06)

미 중부 지역에서는 서늘한 날씨가 전역에 지속되었으며, 아이오와와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평균 6°F 정도 낮은 기온을 기록하였다. 미시시피 계곡 중류지역에서는 3주 연속 폭우가 강타하였으며, 동·중부 아이오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강수량이 7인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기온은 화재의 위험을 가중시켰으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가뭄이 더욱 확산되었다. U.S. Drought Monitor에 따르면, 80%가 넘는 대다수의 주(州)에서 예외 없이 극단적인 가뭄상태에 속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 옥수수

7월 6일 기준, 출사기에 진입한 옥수수는 15%로, 이는 전년대비 9%p 앞섰지만, 5년 평균대비 3%p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콘벨트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수수의 생육단계는 빠른 진행속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켄터키, 미주리, 테네시, 텍사스 지역에서는 출사기에 진입한 옥수수가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옥수수의 상태는 75%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지난주와는 변화가 없는 수치이며, 전년 동기대비 7%p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 대두

주말 기준, 전국 대두의 발아율은 98%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4%p 앞섰지만, 5년 평균대비 다소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개화에 진입한 대두는 24%로, 전년대비 15%p, 5년 평균대비 3%p 앞선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일리노이와 사우스-다코타 지역에서의 주간 대두의 개화율은 20%p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 전체 대두의 상태는 72%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지난주와는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년 동기대비 5%p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을밀

7월 6일 기준, 미국 가을 밀 생산자들의 수확상황은 50%를 넘어서 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57%가 수확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가을 밀 수확량이 57%p로 전년대비 2%p 앞섰으나, 5년 평균 대비 3%p 뒤쳐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캔자스 지역에서는 5.7일 정도가 가을 밀 수확에 적합한 날씨를 나타내었으며, 생산자들은 지난 한 주간 30%의 가을 밀 수확이 가능하였다. 이 지역에서 70%가 수확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가을밀의 상태는 31%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지난주와 다소 비슷한 수치였지만,

전년대비 3%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쌀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쌀 출수율은 17% 수준으로 전년대비 8%p, 5년 평균 대비 3%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쌀의 상태는 70%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주대비 다소 나아진 수준이며, 전년동기 대비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 세계 기후 현황(06/29~07/05)

- 유럽: 느리게 이동하는 폭풍 전선과 한랭전선이 동반되어 넓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하였고, 야외 농작업은 지연되었지만 여름작물의 수확전망을 밝게 하였다. 소량에서 적정한 양(10~25mm)의 비가 프랑스 북부 지역과 영국 및 동쪽으로는 폴란드와 발틱주에 내렸다. 이로 인해 가을밀과 유지작물의 수확은 지연되었지만, 재생산 시기에 돌입한 여름작물에는 적당한 토양 수분을 유지시켜 주었다. 좀 더 남쪽지역으로 갈수록 적당량 혹은 폭우가 내려 프랑스, 독일, 폴란드와 같은 남부 유럽지역과 마찬가지로 북동부 스페인 지역에서도 옥수수와 해바라기의 재생산에 대한 수확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 스페인에서 이탈리아, 발칸반도의 경우에는 좀 더 적은 양의 비(5~40mm)가 내려,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의 생육에 도움이 되었다. 북부와 중부 유럽의 경우 평년대비 평균 1~2°C 높은 기온이 형성되었으며, 남부 주요 여름작물 생산지역에서는 구름과 비로 인해 기온이 평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낮게끔 유지되었다.
- 구소련(서부): 건조한 고온의 날씨가 여름작물의 생육상황을 증진시켰으며, 야외 농작업이 다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주 흠뻑 내린 비로 인해, 맑은 날씨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남부와 서부 가을 밀 생산 지역에 형성되어 수확이 다시 시작되도록 하였다. 최근 내린 비로 인해 휴지기가 있었지만, 옥수수와 해바라기의 성장에는 효율적이었으며, 낮 최고 기온은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임계치 아래로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이처럼, 서늘한 기온(평년대비 4°C 낮음)이 봄 밀 생산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불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만연하였다.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남부의 중앙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2~20mm)가 내려, 여름작물에 필요한 토양 수분이 공급되었다.
- 동아시아: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났지만, 중국 전역에서 넓은 지역에 몬순 소나기가 내렸다.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산발적으로 나타났으며, 작물 재배 지역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강수량은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 몽골 지역에서는 지난 몇 주간 비 소식은 거의 없었으며, 관개 수요가 충족시켜줘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주 총 강수량은 중국 북부 평야지역에서는 평균 30mm 정도를 기록하였으며, 산둥성 지역은 50mm 이상을 기록한 곳도 있었다. 양쯔 계곡 유역에서는 수분 보유 조건이 향상되었으며, 주간 총 강수량은 평균적으로 거의 175mm를 기록하였으며, 동부 지역의 경우 수분 공급량을 증대시켜 주었다.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강수량(평균 30mm 정도)이 발생하였다. 남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려(50~100mm, 국지적으로 300mm 이상) 후반 쌀의 생육 발달에는

도움이 되었다. 한국 동부 지역의 경우, 비가 내려(25~0mm) 이 지역의 쌀 생산에 필요한 수분 보유 상태를 향상시켜 주었지만, 서부 지역의 경우에는 반감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일본 북부와 중부 지역의 경우 비(50~100mm)가 내려 쌀의 수분 공급량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남부 생산지역에서는 더 많은 비가 내려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호주: 호주 서부지역에서는 간헐적인 소나기(5~25mm)와 맑은 날씨로 인해 가을 곡물과 유채의 생육에 필요한 이상적인 조건에 부합하였다. 호주 남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산발적인 소나기(2~10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내려,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즈 남부지역에서는 밀, 보리, 카놀라의 이른 생육발달에 필요한 충분한 토양 수분을 유지시켜 주었다. 북부 지역으로 갈수록,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 지역에서는 증발율을 유지해야 하는 건조한 날씨가 도래하였지만, 토양 수분의 경우 밀과 다른 겨울 작물에 일반적으로 적합한 수준은 유지되었다. 이 지역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평년대비 1°C 낮음)이었지만, 남부와 서부 호주의 기온은 평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평년대비 1°C 높음)이었다.
- 아르헨티나: 북동부 지역에서는 비가 머물렀으며, 면화와 옥수수 수확과 같은 야외 농작업 활동이 지연되었다. 동부 Chaco와 Entre Rios 및 우루과이 동부, 브라질 남부 지역의 총 강수량은 25mm 수준이었다. 서부 Cordoba와 기타 서부 생산지역(La Pampa와 남서부 Buenos Aires, 북부 Salta)에서는 총 강수량이 10mm 정도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주말 La Pampa와 Buenos Aires 지역에서는 야외 농작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될 만큼의 비가 내렸다. 주간 총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일부 습윤한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2°C 정도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다. 비록 대다수 지역에서는 상당히 서늘한 날씨(남부 지역의 경우 최고 기온이 10°C, 북부 지역의 경우 20°C 수준)가 기록되었지만, 남부 주요 생산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10°C 중·후반으로 나타났으며, 북부 지역에서는 20°C 후반을 기록한 곳도 있었다. Santiago del Estero 지역의 경우에는 영하의 날씨가 확산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7월 3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옥수수 수확율은 59%로, 전년의 91%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예견된 바와 같이, 많은 양의 비로 인해 면화의 수확은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가을 밀 파종율은 금년 62%로 전년동기 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브라질: 브라질 남부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지속적으로 내렸지만, 주요 농업생산지역의 경우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가을밀의 생육과 여름작물의 수확이 확대되었다. Rio Grande do Sul 지역의 총 강수량은 100mm 이상으로 가을밀의 출수에는 적절하지 못한 습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지난 주 남부 Parana와 Santa Catarina 지역에서 충분히 내린 비(5~25mm)는 서서히 약화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하게 습하거나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다. 한편, 건조한 날씨는 남부 생산지역(Mato Grosso do Sul에서 Minas Gerais 지역)에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며, 옥수수의 성장과 사탕수수, 커피, 시트러스의 수확에도 도움이 되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기온(낮 최고기온이 20°C 후반에서 30°C 초반)은 작물의 건조에 도움이 되었으며, 사프리카나 옥수수의 수확과 빠른 성숙을 촉진하였다. 계절적으로 건조하고 온난한 날씨는 브라질 중부와 남동부 내륙 지역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며, 면화와 옥수수의 성숙에 필요한 효과적인 30°C 중반의 기온을 유지하였다. 동부 해안지역에서는 비의 양이 감소하였으

며, 일부 지역에서만 10mm 미만의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되었다.